

## 한국 풍수론 전개와 양상과 특색

최원석\*

###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ungsu*(Fengshui)

Wonsuk Choi\*

**요약 :** 풍수사는 풍수 이론체계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관한 풍수이론사와, 풍수 문화요소의 사회적·문화적 전개 과정에 관한 풍수문화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풍수이론사는 전문지식인에 의해서 정교한 지식의 인식 및 논리 체계로 생산, 전개된 측면이 있고, 풍수문화사는 사회집단에 의해서 지리적인 생활사의 과정에서 실천 방식으로 소비, 활용된 측면이 있다. 풍수 이론체계의 생산과 형성, 그리고 이론적 발전은 중국이 주도, 담당하였으며, 한국 및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만든 풍수 이론체계를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문화적 특색에 맞추어 실천하고, 적용, 변용시켰다.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공간적 전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도읍풍수론,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묘지풍수론, 조선후기의 실학적 주거풍수론의 양상으로 드러났다. 한국 풍수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은 동아시아에 비추어 실제적 운용성, 전반적 영향력과 시대적 다양성, 사회적 담론화, 형세론의 우세, 비보론이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어 :** 풍수, 비보, 한국 풍수사

**Abstract :** The history of Korean *Pungsu* can be approached from two perspectives. One is through the history of its theoretical formation and evolution, and the other is through the history of its social and cultural formation and evolution. The former, i.e. *Pungsu* theories, was produced and developed by intellectuals as an elaborate system of cosmic knowledge and logic. The latter, i.e. *Pungsu* culture, was consumed and adopted by various social groups in their spatial life practices. It was Chinese intellectuals that originally initiated and carried out the producti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engshui theoretical system. Intellectuals in neighboring countries adapted Chinese fengshui to their local environment, incorporating their own historical and cultural features, and practiced this transformed and indigenized form of geomancy. The evolution of Korean *Pungsu* can be summarized as having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First, Koreans accepted fengshui from China, pragmatically adapting it to fit the Korean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n used it for social discourse on space. Second, *Pungsu* had a comprehensive and varied influence on Korean culture throughout its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Third, combined with social thought led by differing social classes, Korean *Pungsu* existed as an element of social discourse. Fourth, Koreans' theoretical preferences of fengshui were for the landform method over the *liqi* (理氣) method. Fifth, the Bibo philosophy wa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Pungsu*.

**Key Words :** *Pungsu*(Fengshui, Korean geomancy), Bibo, The history of Korean *Pungsu*

---

\* 경상대학교 명산문화연구원/인문한국 교수(HK Professor, Gyeo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schoe@empas.com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론의 역사적·공간적 양상을 개관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풍수론의 정체성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삼는다. 동아시아 풍수론의 보편성<sup>1)</sup>에 비추어 한국 풍수론의 전개 과정과 특수성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풍수사(風水史)에서 밝혀야 할 중요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풍수사는 풍수 이론체계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관한 풍수이론사와, 풍수 문화요소의 사회적·문화적 전개 과정에 관한 풍수문화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풍수이론사는 전문지식인에 의해서 정교한 지식의 인식 및 논리 체계로 생산, 전개된 측면이 있고, 풍수문화사는 사회집단에 의해서 지리적인 생활사의 과정에서 실천 방식으로 소비, 활용된 측면이 있다.<sup>2)</sup>

풍수 이론체계의 생산과 형성, 그리고 이론적 발전은 중국이 주도, 담당하였으며, 한국 및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만든 풍수 이론체계를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특색에 맞추어 실천하고, 적용, 변용시켰다. 동아시아의 풍수문화사에서 한국적 특색과 정체성은 현재까지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취락풍수 범주의 풍수경관, 풍수설화, 풍수지명, 비보풍수 등의 현상으로도 드러난다.

이 연구는 한국의 풍수론 전개에 관한 선행 연구성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주요한 것을 비평하자면, 무라야마지준은 『조선의 풍수』(1931)에서, 묘지풍수와 주거풍수 신앙을 한국 사회문화의 특질을 이루는 근본적 현상의 하나로 보고 역사민속학적으로 고찰하였다.<sup>3)</sup> 그렇지만 이 책은 한국 풍수론 전개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에 따른 시대적 특징을 통사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이병도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보완되었다. 그는 『고려시대의 연구』(1947)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풍수도참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논구하였다.<sup>4)</sup> 그의 연구는 고려시대 풍수론 전개의 역사적 특색을 시대 구분을 통해 깊이 있게 천착한 선구적인 성과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고려-조선 초의 시기적 범주에 국한된 정

치사적 논의라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풍수론에 대한 통론적 논의는 최창조의 『한국의 풍수사상』(1984)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풍수이론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현대적으로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도읍 및 취락풍수 분야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 책의 한계는 동아시아적인 보편성에 기초하여 한국 풍수론의 전개에 대한 조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윤희기의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An Exploration of East Asian Geomancy*(2006)에서 극복되었다. 이 책에서는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의 풍수론 도입과 전개, 취락풍수 등에 관한 논의가 동아시아적인 범주의 한국적 특색이란 견지로 고찰되었다.<sup>6)</sup> 다만 한국의 풍수 이론사 및 풍수론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통시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의 검토에 비추어, 이 글은 한국 풍수론의 이론적 전개에 대한 통사적인 탐구와 아울러 역사적·공간적인 전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조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한국의 풍수론은 전통시대의 정치사회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역사적·공간적인 양상과 특색을 띠면서 전개되어 나갔다.

역사적으로, 풍수론은 일찍부터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어<sup>7)</sup> 신라시대에는 왕조세력에 독점돼 왕릉의 조성에 쓰이기 시작했다. 고려 왕조에서 불교와 풍수가 결합한 비보풍수론은 국토경영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도읍풍수론으로 운용되었다.<sup>8)</sup> 조선전기에 와서는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맞물리면서 묘지풍수론이 성행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해 주거풍수론이 활발하게 사회에 전개되었다.

공간적으로도, 왕도에서 시작되어 점차로 중앙권력의 통제를 받는 지방 고을, 고을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 단위까지 풍수입지 및 풍수경관이 확산되어 나갔다. 장소적으로는 왕실 단위에서의 궁궐과 능묘는 물론이고, 태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풍수가 적용되었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풍수론이 사회문화와 국토공간에 미친 대중적인 영향은 지대했으며, 그 산물로서 유산록(遊山錄),

풍수도참기, 산도(山圖) 등의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풍수지명, 풍수형국, 풍수설화 등의 풍부한 민간전승이 남아 있다. 수많은 전통취락에서 드러나는 풍수경관은 장기지속적인 문화생태의 토대와 조건을 이룬 경관유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풍수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견해와 논리의 발전 모습을 찾기 어렵다. 중국은 형세론과 방위론을 비롯하여, 역사적 과정에서 풍수의 이론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논의와 다양한 해석이 전개되었고, 그것이 저술과 문헌으로 축적되었다. 다만 한국은 중국의 풍수론을 도입하여 사회적·공간적인 담론으로 운용하고, 한국의 풍토와 실정에 맞게 쓰는 데에 치중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풍수론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은 풍수서를 통한 이론 자체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한국의 풍수이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인 동력에 의해 해석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거나 제외되었으며, 어떤 사회 메카니즘(사회제도, 정치권력, 사회계층의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해석,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정치사회사·문화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각 시대별로 풍수론의 역사적이고 공간적 특성이 달리 나타났고 변천하였다. 한국 풍수론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해 볼 때, 주요한 사회사상적 담론으로 형성된 것은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풍수론,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풍수론, 조선후기의 실학적 풍수론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되어 전개된 공간적인 시대별 특색은, 고려시대의 도읍풍수론, 조선전기의 묘지풍수론, 조선후기의 주거풍수론(마을풍수론·주택풍수론)으로 대별된다. 같은 조선시대 내에서도 조선전기 성리학적 풍수론의 윤리성은 조선후기 실학적 풍수론의 실용성과 대비된다.

따라서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 특색이 되는 고려조의 비보도참적 풍수론, 조선조의 주자학적·실학적 풍수론은 그 배경과 함께 증점적으로 밝혀야 할 탐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 풍수론의 전개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형세론이 우세하게 활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서 고찰해야 할 주제이다. 고려시대에는 도읍풍수론이 활발했는데 왜 조선시대에는 묘지풍수론과 주거풍수론이 성행했는지, 조선전기의 묘지풍수론에 비해

후기에는 왜 주거풍수론이 활발했는지, 이러한 시대별 풍수론의 특색과 정체성의 규명은 흥미로운 비교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도참과의 관계도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도참이란 그림이나 징표 등을 통해 국가나 사회의 길흉을 예언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와 도참이 결합한 풍수도참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은 고려시대 풍수론의 특색으로 꼽을 만하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서는 유교적인 사회이념과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도참은 유학자들에 의하여 강력히 비판되었고 엄격하게 배제되었다. 다만 조선중후기에 민간에서는 『정감록』류의 풍수도참서가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

풍수론의 사회적 전개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시선과 접근은 마땅히 시대별로 어떤 사회계층이 풍수론을 주도하였는지의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한국 풍수론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지배 권력층과 지식인 계층의 영향력이 컸다. 권력층은 풍수론을 이용해 정치적 수단과 담론으로 활용하였고, 지식인층은 풍수론을 해석해 사회문화적인 지식과 담론으로 창도(唱導)했다. 고려시대에는 승려지식인들이 불교와 결합한 풍수담론을 주도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유교적인 풍수담론을 이끌었다.

이러한 논지로 한국의 풍수론은 역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배경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맺음말에서는, 동아시아 풍수론에 비추어 한국 풍수론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

## 2. 풍수론의 도입과 운용

### 1) 신라·고려시대의 형세론과 풍수도참설

한국 풍수론의 전개는 중국의 풍수론을 도입해 정치사회적으로 운용하고 국토공간에 적용하면서 변천

되어 나가는 전반적 과정이다. 중국의 풍수론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한국은 중국의 풍수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운용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풍수론은 크게 형세론과 이기론이 있다. 형세론이 이기론보다 먼저 발전하였다. 이론적 특징으로서, 형세론은 입지한 지형의 모양새로 풍수의 길흉 조건을 따지는 법이고, 이기론은 배치된 장소의 방위로서 장소의 길흉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나경(羅經)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중국의 양자강 남쪽 지역에는 산과 하천이 많아서 형세론이 발달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형세론은 산이나 구릉이 많은 지역에 주로 많이 적용된 반면, 이기론(방위론)은 평야지대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송대 이후에는 정자·주자의 이학(理學)이 전개하였던 정치한 논리에 영향을 받아 이기론이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마련되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풍수에서 터를 정할 때 형세론과 이기론은 같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한국이 마찬가지로였다. 우선 형세론적인 방법으로 입지할 장소의 대체적인 지형의 모양새를 판단하고, 다음에 나경을 이용하여 배치 관계의 이기론적인 길흉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던 것이다.

형세론은 주로 산맥·하천이 흐르는 방향과 모습 등과 같이 지형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형세론의 특징은 당나라의 풍수사 양균송(楊筠松)의 이론에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의 저술인 『감룡경』, 『의룡경』 등은 산의 형세를 해석하는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두 책은 조선시대에 관상감(觀象監)에서 뽑는 풍수 과거시험 과목이기도 하였다. 형세론이 다루는 산의 형세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 민간에 광범위하게 흘러 확산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서민층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기론은 산천의 기를 고찰할 때 나경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주역의 원리에 의거하여 8괘(八卦), 12지(十二支), 천성(天星), 오행(五行)을 이론의 4대 요강으로 삼는다(何曉昕·羅雋, 1995, 160). 이 설은 송대 이후에 나경의 응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흥기하였다. 이기파의 풍수는 수(數)와 이(理)의 상관성을 강

조하므로 그 이론 방법도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조선 초기에 이기론 저술인 『호순신(胡舜申)』이 한양의 국도 결정 과정에서 주요 논리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책은 이후에 관상감의 풍수 과거시험 과목으로도 채택되었다.

중국의 형세론과 이기론은 한국에 수용되어 국토공간에 널리 적용되었는데, 시기별로 보면 형세론이 먼저 들어왔고, 이기론이 나중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 형세론은 나말려초부터 주요한 풍수이론으로 사회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형세론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신라시대에서 초기적 모습이 등장한다.<sup>9)</sup> 탈해가 정한 곳은 이후 신라의 왕궁이 들어선 현재 경주의 반월성 자리이다. 주목되는 내용은 ‘초승달같이 둥근 언덕을 하고 있어서 오래 살 만한 지세’라는 탈해의 입지 관이다. 왕궁이 입지할 지형지세를 초승달과 같이 사물에 빗대어 파악하였던 것이다. 초승달은 보름달이 될 가능태를 지니는 길(吉)한 형상으로 인식하는, 초기적인 풍수 형세론의 사고방식이다.

중국의 풍수론이 한국에 들어온 시기에 관해 알 수 있는 최초의 역사 기록은 최치원(857-?)이 지은 『송복사 비문』이다. 때는 798년의 일로서, 여기서 청오자(靑鳥子)라는 중국 한나라의 풍수사가 등장한다. 청오자는 『청오경(靑鳥經)』이라는 풍수서의 저자로 알려졌다. 조선 왕조에 『청오경』은 『금낭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풍수 교과서로서, 형세론이 반영된 책이다.

중국의 풍수론이 신라에 들어온 경로는 두세 갈래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왕실을 통하여 수입된 경로이다. 당시의 중국 당나라에는 풍수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을 때인데, 당나라와 문물 교류가 많았던 신라 왕실에 중국 풍수론의 도입은 당연하게 보인다. 또한 갈래는 중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승려들과 지식인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길이다. 신라 말에는 여러 승려들과 지식인들이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 풍수를 접하고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sup>10)</sup> 특히 중국 강서지방에서 선종을 배우고 들어온 승려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널리 유행하였던 풍수 형세론을 습득하였을 것이다. 그밖에 중국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 물물 교역을 하면서 항구를 중심으로 풍수서가 민간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왕실로 들어온 풍수는 주로 궁궐이나 왕릉터를 잡는 데 쓰였고, 승려들을 통해서 들어온 풍수는 절터나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활용되었다.

나말려초에는 산천의 순역(順逆)을 주로 살피는 형세론이 지배적인 풍수이론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기론이 강하게 적용되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고려 태조 26년(943)의 훈요십조 중에, “모든 절은 다 도선(道洗)이 산수의 순역(順逆)을 보고 개창한 것이다”<sup>11)</sup>라고 한 표현은 당시에 성행하였던 풍수 형세론의 지배적인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형세론이 널리 퍼진 까닭을 살펴보면, 중국의 풍수이론 자체가 형세론의 이론적 구축이 시기적으로 일렀고, 이기론은 송대 이후에야 성행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기론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힘 있는 논리로 영향력을 미쳤다. 직접적으로는 신라 말에 유학을 간 승려지식인들이 주로 형세론이 성행하였던 강서지방의 선종을 배우면서 풍수 형세론도 같이 습득하여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세론이 산이 많은 한국적 풍토에 적용하는데 이론적으로 적합하고, 이기론에 비해 이해하기도 쉬워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지형·지리적인 측면의 배경 요인도 크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풍수적 관심과 필요에 의해서 중국의 풍수서가 꾸준히 도입되었던 것 같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현종 13년(1022)에 한조(韓祚)가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송 황제가 하사한 책에 『음양이택서(陰陽二宅書)』, 곧 묘지풍수서와 주택풍수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 책이 형세론과 이기론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이기론의 풍수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미 고려조에 이기론 서적이 유입되면서 풍수 현장에서 구사되어 나갔음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려는 중국의 이기론을 비보론을 매개로 도참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사상체계를 갖추었다. 한국에서 유행한 이기론은 다른 사상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발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안영배, 2013, 280-283).

고려시대에 서운관(書雲觀)<sup>13)</sup>에서는 지리업(地理業)이란 분야로 과거를 통해 풍수전문인을 뽑았다. 당시에 풍수는 지리라는 일반 명칭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왕조에서 과거를 통해 지리업에 급제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칭호와 위계가 주어졌다. 고려 문종 30년에 지리업 별사전(別賜田)의 수급대상자에는 지리생(地理生), 지리정(地理正), 지리박사(地理博士), 지리사(地理師) 등의 호칭과 위계가 나온다. 이들은 궁궐터나 절터, 태의 매장 장소 등을 선정하는 일을 보았다(박용운, 1990). 그중 지리생은 과거에 갓 급제한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고, 경력이 높아감에 따라 지리정, 지리박사로 진급하며, 지리사는 풍수전문인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sup>14)</sup>

고려시대의 풍수 과거 시험과목으로는 『신집지리경(新集地理經)』, 『유씨서(劉氏書)』, 『지리결경(地理決經)』, 『경위령(經緯令)』, 『지경경(地鏡經)』, 『구시결(口示決)』, 『태장경(胎藏經)』, 『가결(訶決)』, 『숙씨서(蕭氏書)』 등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풍수지리 분야의 과거시험 과목에 드는 책들은 현존하지 않고 중국의 풍수서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이유에 관해서는 학계의 숙제로 남아 있다. 그 중 『경위령』은, 고려 숙종 7년(1102)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남경(한양)에 이궁(異宮)을 조성하는데 이 책에 근거하도록 왕에게 말한 대목<sup>15)</sup>이 있고, 조선 문종 1년에 정안종의 상소에서 “당나라 일행(一行)이 지은 경위령”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대목<sup>16)</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까지는 주요 풍수서로 활용된 듯하다(김두규, 2005, 621). 『유씨서』는 한나라 회남왕(淮南王)의 아들인 유안(劉安)이 빈객(賓客)과 방사(方士)를 모아 지은 『회남내외서(淮南內外書)』로 추정하며, 『지경경』은 마국한(馬國翰)이 모은 『옥함산방일서(玉函山房逸書)』 중의 지경도(地經圖) 같은 것인데, 생물지리학의 내용으로 6세기 양(梁)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허홍식, 1980, 117). 그런데 위의 추정은 책 내용이 풍수와는 거리가 있어서 비판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태장경』은 같은 책이름으로 조선의 『문종실록』에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는데,<sup>17)</sup> 고려시대 책과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책이름으로 보아 태를 봉안하는 방법을 다룬 풍수서로 보인다.

태실(胎室)은 왕실에서 태아를 출산한 후에 나오는 태반을 안장하기 위하여 조성되는데, 고려 왕실에서 풍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명당지(胎峰)를 선정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나면 태를 태실에 묻고, 궁궐에서 살다가, 왕릉에 묻히는, 왕실의 모든 공간적 생활사의 행로가 풍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풍수문화에 비추어 한국적 특징의 한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실의 풍수에서도 묘지(왕릉)풍수, 도읍(궁궐)풍수와 함께 태실풍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왕조실록의 언급에서도 드러나지만, 조선 왕실의 논의에서 태실은 사람의 성격과 인지, 건강, 출세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며,<sup>18)</sup> 좋은 땅에 태를 안장함으로써 당사자가 풍수적 소용을 얻어 일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실지의 발복은 풍수적 논리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묘지풍수가 조상의 뼈를 매개로 땅의 생기(生氣)와 감응함으로써 후손이 발복한다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에 비하여, 태실풍수는 당사자의 태가 길지의 생기에 접하여 감응함으로써 '본인'이 발복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수적 논리구조는 주택풍수의 발복 메커니즘과 유사한데, 주택풍수는 본인이 풍수적으로 좋은 환경에 거주하면서 그 길한 기운을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논리로 인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왕가의 태실지는 풍수전문가가 선정하였고, 기존에 안장된 태실도 더 좋은 곳을 택하여 옮기기도 하였다.<sup>19)</sup>

조선시대 태실의 풍수적 입지조건과 패턴은 모두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태실지의 위치가 동산의 봉우리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지양상은 마치 한의학에서 인체의 머리 정수리인 백회혈(百會穴)의 경혈 자리와 대비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태실지의 일반적 입지패턴에서 보이는 풍수적 지형지세 조건을 보면, 묘지의 명당 형국과는 입지양상이 달리 북현무·남주작·좌청룡·우백호 등 명당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형지세가 수반되지 않는다. 이러한 태실지 풍수의 입지특성과 공통적인 입지패턴을 보이는 까닭은 태실의 입지선정 준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실의 풍수적 조건에 관하여, 『태봉등록(胎封臚錄)』에 이르기를, “태봉은 산 꼭대기에 쓰며 원래 내맥이나 좌청룡·우백호나 안산·조산 등이 없다.”<sup>20)</sup>라고 입지지형의 특성을 요약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실풍수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비중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의 풍수 과거과목과 조선시대의 그것은 전혀 다르고 계승되는 면이 없다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조선시대의 풍수 과거과목과 비교해 볼 때 고려시대는 전문적인 풍수이론서의 선택이 약하고 풍수도참서로 보이는 책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시대에 전개되었던 사회적인 풍수담론의 경향에 비추어 유의할 만하다.

도참과 풍수의 결합은 형세론의 이론적 경향과 함께 고려시대 풍수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된다. 조선시대에도 풍수와 도참의 결합은 조선후기에 『정감록』<sup>21)</sup>의 형태와 같이 민간계층에서 널리 유행하였지만, 고려시대에는 정치 지배 권력층의 담론에서 풍수도참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도참이란 국가조업(國家祚業)의 흥망성쇠와 인간만사의 길흉화복을 징험(徵驗)하는 예언·비기류의 총칭이다(양은용, 1990). 참기(讖記)를 한국에서는 흔히 비기·밀기 혹은 비결이라고 하는데, ‘참’이란 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언어 혹은 문자로서 장래의 일을 예언·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도, 1947). 장래의 운명을 지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점복(占卜)과 거의 같지만, 도참은 대부분 나라의 흥망추이(興亡推移)와 같은 사회적인 운명관인 점에서 다르다(村山智順, 1933). 도참의 사회사상적 성격에서 주목할 점으로, 사회변혁기의 도참은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사상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역사적인 전환기의 도참에는 사회변혁의 열망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한국에서 도참은 흔히 풍수지리와 결합하여 풍수도참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도선이 활동하였던 나말려초에는 민중의 기복적 욕구와 사회변혁의 갈망이 반영된 풍수도참이 새롭게 대두되었다(김낙필, 2006, 146).

고려시대는 풍수도참설이 유행하여 사회사상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풍수도참서는 비보풍수론으로 고려시대를 풍미했던 도선의 유명세를 끌어대어 이름을 붙인 것이 많았다. 고려 중기인 12세기 초가 되면 풍수도참 서적이 범람하여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그리하여 『고려사』에 의하면, 예종 1년

(1106)에는 “음양지리에 관한 여러 책들을 왕실에서 새로 정리하여 『해동비록(海東秘錄)』이라는 책 1권으로 편찬하기도 했다.”<sup>22)</sup> 여기서 음양지리는 풍수도참으로 보이며, 『해동비록』이라는 책 이름을 보아도 다분히 도참서의 성격이 짙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풍수론의 특징인 비보풍수론도 후대에 가서 도참과 긴밀하게 결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긴 고려중후기의 사회경제적인 폐해로 말미암아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에 의한 집중적인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2) 조선시대의 풍수지리론

조선시대 풍수론은 고려시대 풍수론과 원리는 같았지만 시대상황과 맞물린 사회문화적인 전개는 고려시대의 그것과는 달랐다. 또한 조선시대의 풍수론은 중국 풍수서의 풍수이론을 그대로 쓴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특정하게 운용한 면으로는 중국과 달랐다.

조선시대에 와서 풍수라는 말은 일반화되었으며 지리(학)와 동일한 뜻으로 쓰였다. 전시대인 고려시대에는 지리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고, 풍수란 말을 썼다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조선시대에는 풍수를 지칭하는 말에 지리학이라는 말 외에도 음양학(陰陽學), 풍수학(風水學), 음양풍수학, 풍수지리학 등으로 불렸으며, 세조 12년(1466)에 지리학으로 정하였다. 조선 왕조에서는 1425년(세종 7)에 서운관을 개칭한 관상감에서 지리학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였다. 관상감은 조선시대 천문(天文)·지리(地理)·명과(命課) 등의 일을 담당한 관서로서, 지리학(풍수) 분야로는, 관원(官員)에 지리학교수(地理學教授, 종6품) 1명과 지리학훈도(地理學訓導, 정9품) 1명을 두었고, 10명의 지리학생도(地理學生徒)를 두었다.<sup>23)</sup>

조선 왕조에서는 고려 왕조와 달리 유교적인 이념과 합리주의에 근거하였기에, 불교사상이 포함된 조선의 비보풍수론과 예언적·미신적인 도참사상은 유학자들에 의하여 비판되어 배제되었다. 조선 초(1417)에 태종은 도참을 금(禁)하는 왕명을 내려, 도참술서(圖讖術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기에, 개인이 소장한 전국의 모든 도참술서

를 모아서 불태우게 했다.<sup>24)</sup> 고려 왕조에서는 풍수도참사상이 지배층과 지식인계층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고, 풍수 과거과목에서도 도참서의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조선 왕조에서는 도참을 떼어낸 풍수론만 논의되었고, 서민들에게만 『정감록』류의 풍수도참서가 조선후기에 유행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풍수도참사상이 이어졌지만 이론적으로 정비되며, 기축적(祈祝的)인 요소를 벗어나 순수 풍수지리학의 모습으로 경향을 바꾸었다는 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학문적(學論的) 바탕 위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아 나가는 성리학의 영향이 크게 주효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손항룡, 1987, 66-67). 더구나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형세론과 이기론을 포함한 전문적인 풍수서가 대거 수용되어 풍수이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고, 태실·왕릉이나 도읍지 입지 선정 등의 풍수적 논의에서 고려시대보다 훨씬 정교한 풍수적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었다.

조선 왕조의 풍수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반영하듯이, 중국의 풍수 이론서 중에 형세론 외에도 이기론의 책들도 많이 수입되어 형세론과 이기론 모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조선시대의 풍수 과거과목에는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명산론(名山論)』, 『호순신(胡舜申)』, 『지리문정(地理門庭)』, 『감룡경(撼龍經)』, 『착맥부(捉脈賦)』, 『의룡경(疑龍經)』, 『동림조담(洞林照膽)』 등이 있었다. 이들 책은 대부분 중국의 형세론·이기론의 주요 풍수서로 현존하나, 『지리문정』의 저자는 알 수 없고, 『착맥부』는 도간(陶侃), 그리고 『동림조담』은 범월봉(范越鳳)이 썼다고 한다(김두규, 2005). 『감룡경』과 『의룡경』은 형세파인 당나라 양균송의 저술로 유명한 것이다. 그밖에 명나라 때에 서선계·서선술이 쓴 『인자수지(人子須知)』(1564)도 형세론의 저술로서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필사되어 읽혔다. 현존하는 주요 저술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오경』은 한나라 때 청오자(靑烏子)가 썼다고 알려지나 송나라 이후의 위작일 가능성이 높은 책이다(최창조, 1993). 한국에는 언제 도입되었는지는 분명치 않고, 조선시대에 와서 『금낭경』과 함께 풍수의 필

수 과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낭경』은 곽박(郭璞, 267-324)의 저술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당나라 때나 그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고, 중심적인 내용으로는 생기(生氣)나 형세(形勢)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최창조, 1993). 이 책의 구성은 기감편(氣感編), 인세편(因勢編), 평지편(平支編), 산세편(山勢編), 사세편(四勢編), 귀혈편(貴穴編), 형세편(形勢編), 취류편(取類編)의 8개 편으로 이루어져, 형세론에 치중된 저술임을 알 수 있다. 『금낭경』은 한국에서 풍수 논의의 텍스트로 취급된 책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명산론』은 『청오경』, 『금낭경』, 그리고 『호순신』과 함께 조선조 풍수학의 4대 시험과목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명나라 때의 채성우(蔡成禹)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재구성한 사람이며, 이론적 특징은 철저하게 형세론의 입장에서 쓰였다(김두규, 2005). 『감룡경』과 『의룡경』은 당나라 때 양균송의 저술로 알려졌으며, 역시 형세론에 기초하여 산의 풍수적 이치를 논한 책이다. 『감룡경』의 논리는 산의 모양새를 아홉 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형태에 따른 길흉을 따졌고, 『의룡경』은 어떤 산의 형세를 갖추는 것이 혈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기론이 주요 논리가 된 책으로는 『호순신』이 있다. 이 책은 『지리신법(地理新法)』이라고도 하며, 저자는 호순신이다. 이 책은 이기론의 입장에서 쓰였으며, 묘지뿐만 아니라 국도[京都], 고을[州縣], 사관(寺館) 등과 같이 주택이나 양기(陽基) 풍수까지 공간적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김두규, 2005). 조선시대에는 이기론에 기초한 풍수 판단에서 필수적인 용구인 나경이 제작되어 활용되었다. 나경은 윤도(輪圖), 나반(羅盤), 지남철(指南鐵), 쇠[鐵]라고도 일컫는 풍수 도구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중기까지 윤도라는 나침반이 방위 측정의 도구로 쓰이다가, 이후 중국에서부터 도입된 전문적인 풍수 용구인 나경으로 점차 대체되고, 후대에 더욱 정교한 나경이 관상감에서 제작·활용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나경의 구성은 어떤 풍수 향법(向法)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조인철, 2005, 16).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현존하는 19세기 중반의 나경은 24층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관상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조인철, 2011, 162) 조선후기

에 공식적으로 풍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풍수 과거 과목에 드는 책들을 자세히 보면 조선시대 풍수론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로 묘지풍수론을 다룬 책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풍수 과거과목이 묘지풍수서가 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조선 왕조가 유교적인 효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풍수를 수용했던 사회이념적인 정황을 잘 말해준다. 조선 왕조에서 왕릉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수많은 풍수적 논의와 담론이 일어났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려 왕조만 하더라도 풍수론의 사회적인 주류는 묘지풍수론이 아니라 도읍풍수론이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풍수론의 운용을 주도하는 사회주체들의 정치사회적인 성격과 이데올로기, 그에 따른 풍수적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풍수 과거과목도 전연 다를 수밖에 없었고 계승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풍수론의 특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을풍수론과 주택풍수론이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유학자들이 향촌 곳곳에 동족촌을 이루면서 마을풍수의 사회적 담론이 성행하였으며, 풍수입지와 풍수경관을 지닌 마을들이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17세기 전후로 일본과 청나라의 침략, 사회(士禍) 등 정치군사적인 내우외환의 사회분위기에서 유학자들이 산림에 은거하는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실제적인 주거의 필요성에서 주택풍수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학자들의 저술로 남겨졌다. 이러한 주거풍수론(마을풍수론·주택풍수론)의 사회적 분위기는 민간에게도 전파되어서 많은 자연마을에서 풍수적인 이해와 적용이 쉬운 형세론(嚆形-형국의 형태)으로 마을과 주거지의 풍수경관이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활발했던 묘지풍수론과 주거풍수론의 사회적인 담론은 고려시대 도읍풍수론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풍수적인 원리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사회적인 성격과 적용 대상은 전연 다른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도읍풍수론은 지기쇠왕설 및 비보도참설과 결합하여 왕조 지배세력들 간의 권력투쟁 성격을 띤 정치사회적 담론으로 성행되었지만, 조선시대의 묘지풍수론과 주거풍수론은 도참을 철저히 배제하고 풍수논리 자체에



치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운용에 있어서 유교지식인 계층이 주도한 풍수담론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정황에서 조선후기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주택풍수서도 많이 읽혔다. 실학자들의 저술에는 그들이 참고하였던 중국의 여러 주택풍수서와 일반풍수서들이 인용되어 있다. 예컨대 서유구(1764-1845)는 『임원경제지』에서, 중국의 풍수서로 『상택경(相宅經)』, 『양택길흉서(陽宅吉凶書)』, 『음양서(陰陽書)』, 『지리전서(地理全書)』 등을 참고하여 주거풍수 논의를 하였다.<sup>26)</sup> 민간 부문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중국 청대(清代)의 조정동(趙廷棟, 1736-1795)이 저술한 『양택삼요(陽宅三要)』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 책의 논리는 다시 『양택요결(陽宅要訣)』이나 『민택삼요(民宅三要)』 등의 이름으로 편집되어 19세기 이후 한국의 주택풍수론을 주도했다. 그 중 『민택삼요』는 일제강점기(1928년)에 밀양의 손유헌(孫瑜憲)이 중국의 『양택삼요』를 한국적인 주택 조건에 맞추어 발전시킨 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한국 풍수 사상의 정수는 택지술(擇地術)의 원리를 담은 풍수서보다는 한국의 풍수설화·풍수가사·풍수도참술서 또는 풍수 무가에 더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민간 전통 요소들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풍수지리설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윤흥기, 2011).

조선후기의 풍수도참서로 유명했던 『정감록(鄭鑑錄)』과 주민들의 형국적인 마을경관 인식은 그 대표적인 요소가 된다. 조선후기에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정감록』이라는 풍수도참서가 민간사회와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정감록』에 포함된 피난보신(避難保身)의 땅으로서 십승지(十勝地)<sup>27)</sup> 논의는 조선후기의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십승지로 지목되는 장소로 인구 이동이 유발되는 사회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28)</sup> 조선시대의 풍수도참서로 유명한 『정감록』 류의 책 속에는 고려와 조선의 유명한 풍수승, 풍수지식인의 이름을 끌어댄 문헌들이 편집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중국 당 현종(712-756) 대의 승려이자 유명한 풍수가인 일행(一行, 683-727)까지 저자로 등장한다. 『정감록』 중에서 「일행결(一行訣)」·「일행사설(一行師說)」 등이 그 사례이다. 일행은 한국의 풍수설화에서 도선(道詵)의 스승이

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중국의 풍수사였다.

점차로 풍수문화가 지방의 마을로 파급되면서 민간에게는 형세론의 한 부류인 형국적인 풍수 이해방식이 널리 유행하였다. 형국론[形局論]<sup>29)</sup>이 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은 풍수경관을 의인화·의물화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난해한 이론 풍수에 비해 풍수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리산권역의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관내의 자연마을에서만 500개가 넘는 수많은 풍수 형국이 나타나는 사실만 보아도<sup>30)</sup> 주민들의 형국적 인식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형국적인 풍수 이해는 마을환경과 문화생태적인 코드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을의 문화경관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시대의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입지환경에 대해 풍수형국이라는 상징체계로 관계를 맺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국적인 해석에 따라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기존 지명이 풍수적으로 풀이되어 의미가 바뀌는 과정도 거쳤다. 주민들이 자연환경과 관계 맺은 풍수적 요소는 풍수지명 외에도 풍수설화, 풍수의례, 풍수비보 등이 있었다(최원석, 2011, 266). 이러한 문화생태적 풍수요소들은 마을의 입지 형국과 관련되어 의미가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풍수적 환경에 피드백의 영향을 주었다.

### 3.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공간적 전개

#### 1)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도읍풍수론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과 문화교류가 빈번하였기에, 중국의 풍수가 일찍이 삼국시대 전후로 들어왔겠지만, 한국에서 풍수론이 사회담론으로 형성되어 정치적 조건과 결부되면서 지배적인 공간논리로 기능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풍수론의 특징은 비보도참적인 도읍풍수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풍수도참설은 일찍이 중국

에서도 있었고, 한국에도 어느 시대나 존재하였지만, 고려시대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정치사회담론으로 성행하지는 못하였다. 고려시대 비보도참설의 논리는 크게 산천비보설 혹은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과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로 이루어졌다. 당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나 여러 궁궐의 축조 경영 문제는 지기쇠왕설, 산천비보설과 맞물려 있었다(윤홍기, 2011).

신라 말의 승려인 도선(827~898)은 ‘산천 순역(順逆)의 형세’로써 지형지세를 보고, 절과 탑 등으로 풍수적 결합을 보완하는 비보사탑설을 창도하였다. 이로써 비보사탑설은 풍수의 형세론과 불교(밀교)의 사리탑사상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비보사탑설은 산천비보설 혹은 비보풍수론이라고도 한다. 그 핵심적인 이론은 산과 하천이 대상 장소를 중심으로 구심성(求心性)을 지니면서 잘 에워싸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 장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원심성(遠心性)이나 편심성(偏心性)을 보이면서 등지거나 거스르는지를 먼저 따지고, 이에 따라 등지거나 거스른 곳에는 풍수적인 보완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로 그 풍수적인 대상은 도읍이나 사찰 등의 삶터가 위주가 된 것이었다.

도선의 비보풍수론은 나말려초의 전환기에 사회변혁을 이끄는 공간적 논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조 오백여 년을 걸쳐 국토공간의 계획 및 운용 원리이자 사회사상적 이데올로기로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고려사에 드러난 도선의 모습은 신라 왕조가 몰락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태동기에 불교와 풍수라는 두 사상 요소를 결합, 응용하여 사탑비보설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실천한 전환기의 지식인으로 묘사되었다(최원석, 2009, 81)

한편으로, 지기쇠왕설은 땅 기운이 때에 따라 쇠약하기도 하고 흥성하기도 한다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 논리이다. 개인이나 왕조가 아무리 명당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의 기운이 변하게 됨으로 발복이 끊기고 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병도, 1980). 그러므로 지기쇠왕설은 그 땅의 기운이 왕성할 때인지 쇠퇴할 때인지를 점치는 도참 예언으로 변질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지기쇠왕설의 영향을

받아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평양)으로 천도하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묘청(?~1135)의 난으로 발전되기도 했다(윤홍기, 2011). 그리고 지기쇠왕설의 논리에 근거하여 수도인 개경 외에도 이궁(異宮)과 이궐(異闕)을 여러 곳에 짓기도 했다.

비보사탑설과 지기쇠왕설은 서로 결합되면서 비보도참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내었으며, 지배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 담론과 결부되어 왕경의 연기(延基)나 천도와 같은 도읍풍수론으로 전개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조류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승려지식인들과 왕권세력들이었다. 도선이 역사상에서 한국 풍수론과 비보도참설의 시조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한국 풍수론의 특색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비보풍수론이 고려시대의 풍수담론으로 세력을 떨친 것은 정치사회적인 배경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고려 왕조는 불교의 불력신앙(佛力信仰)과 풍수의 지력사상(地力思想)을 결합시킨 이데올로기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후에 비보사탑설에 기초하여 전국에 지방호족들의 기반이 되는 사찰들을 정비·재편하였다. 여기서 비보풍수론은 국토운영의 상위 원리가 되어, 왕도인 개경을 보위하는 도성계획안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국도와 지방의 공간적 통합성을 이루고 왕권의 중앙적인 집중 및 지방 호족의 효율적인 통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 왕조는 도성계획안으로서 국가비보소를 국도 개성에 설치하였고, 지방의 비보사찰을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재편성시켰다. 태조 대에 산천의 순역을 따진 비보풍수론에 의거하여 지정된 사찰에서 출발하여, 각 행정단위의 중심지에서 비보사찰이 정비되어 늘어나고, 나중에는 모든 사찰이 국가와 고을 비보소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한기문, 2006, 272).

고려시대를 걸쳐 강고한 사회담론이었던 비보풍수론은 고려 말에 이르자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사상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역

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도권 부문에서 급격히 와해되어 민간부문에서만 미약하게 유지되었다. 조선 왕조가 건국과 동시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것도 개성을 중심으로 설치된 기존의 비보사찰들이 축소 혹은 혁파되는 실제적 이유가 되었다.

이후고 고려시대의 비보풍수론은 조선조 배불(排佛) 정책의 기초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지배로 말미암아 불교신앙적인 기능은 없어지고 풍수적인 기능과 양식의 비보로 대체되었으며, 드디어 비보사탑설은 15세기 말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최원석, 2004).<sup>31)</sup>

고려시대 비보풍수론의 주류는 사찰과 탑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불교적인 풍수경관의 보완 방식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취락경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숲이나 조산(造山) 등의 풍수적인 비보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조선 개국 후 한양의 환경계획 및 구성에는 풍수적 비보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으나, 이는 고려의 불교적 비보 위주의 정책과는 차별되는 점이었다. 조선조에 불교적 비보는 내리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으나 풍수적 비보는 여전히 중요한 환경구성 원리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비보풍수론은 고려시대처럼 정치이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전 기간을 걸쳐 취락의 풍수경관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적인 용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수도인 한양에서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비보물이 설치되었고, 지방 고을과 마을에 숲과 조산 등이 조성되어, 비보풍수는 한국 취락의 전통적 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형태이자 기능적인 요소가 되었다.

풍수이론사에 비추어볼 때, 비보풍수론은 인문 가치의 중시와 공간 조영주체로서의 인간에 강조점을 둔 풍수론의 역사적 발전 형태였다. 지리적 조건의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보정, 보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문화적·상징적 능력에 중점을 둔 새로운 풍수론적 패러다임이었다(최원석, 2004). 이러한 상상성을 지닌 비보풍수론은 나말려초의 시대적 전환기에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사회담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정교한 이론적 논리체계는 갖추지 못한 풍수의 사회적 응용 및 실천 형태라는 한계도 있었다.

## 2)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묘지풍수론

조선전기에 왕조의 승유역불 기초로 말미암아 고려의 비보사탑설과 풍수도참설은 급격히 쇠퇴하고, 대신에 주자의 풍수관과 주자학의 틀에 기초한 풍수론이 조선사회의 풍수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 주자학적 풍수론의 이론적 성격은 형세론이 위주가 된 묘지풍수론이었다. 묘지풍수론은 고려시대의 도읍풍수론과 대비되면서 조선전기 풍수론의 공간적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풍수담론을 이끈 사회계층은 당시 지도층으로서 사회담론을 주도했던 주자학자들이었다. 관상감이 풍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도적인 기관이기는 하였으나, 관상감에 소속된 풍수사들은 신분과 직위가 낮은 중인 계층이었기에 사회지배 계층으로 활약한 유학자들의 권위와 지식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래서 유교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된 풍수론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게 된 것이었다. 지방의 향촌사회에 풍수론이 널리 확산되어 취락 및 문중 묘지의 풍수적 입지나 비보 경관이 조성된 데에도 향촌에 근거지를 둔 유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조선초기까지만 하여도 풍수서들을 민가에서 소지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금지되어(이상태, 1987, 215), 일반인들의 풍수지식에 대한 접근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자 지리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풍수론 역시 관료 및 지식인 계층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지방 사족층(士族層)의 사회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향촌에 세력 근거지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풍수는 주자학적 세계관의 틀 내에서 유가적 이데올로기와 결합, 변용되어 사족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조선전기의 유교지식인 사회에서 풍수론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준거로 수용되었다(김경숙, 2002, 67). 주자의 풍수관을 정론으로 삼는 조선전기 유학자들의 견해는 정구(1543~1620)의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sup>32)</sup>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풍수에 대한 태도와 생각은 주자의 「산릉의장(山陵議狀)」에 나타난 풍수관이 지침이 되었다.<sup>33)</sup> 「산릉의장」에는 주자가 풍수를 쓰는 목적과 풍수에 대한 방법론적인 인식이 잘 드러

난다. 이 글에서 주자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풍수를 활용하여 터를 정하라고 하였다. 자손으로서 조상의 유체(遺體)를 잘 갈무리하려면 삼가 신중하고 정성껏 공경하는 마음을 다해 안정되고 오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풍수는 그 방도로서 비록 술가의 설이라도 이치가 없다고는 하지 못하는 데, 땅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세(主勢)의 강하고 약함, 풍기(風氣)의 모이고 흩어짐, 수토(水土)의 열고 깊음, 혈(穴)의 치우침과 바름, 역량의 온전함과 그렇지 않음을 논하고 나서 그 땅의 아름답고 추함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요컨대 풍수는 효를 실천하는 한 방도로서 의미가 있고, 술법이지만 이치가 있어서 땅을 고르는데 합리적이고 신중히 하라는 것이다.

중앙 혹은 지방에 근거지를 둔 조선시대의 유교 지식인들은 취락의 입지 및 경관에 대한 풍수적 견해를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의 풍수적 견해는 고을이나 촌락의 풍수적 조영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유학자 중에서 정구(1543~1620), 장현광(1554~1637), 이식(1584~1647), 윤선도(1587~1671), 권섭(1671~1759), 이중환(1690~1752), 이익(1681~1763) 등은 풍수론에 대한 깊은 식견이 있었고, 풍수론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했던 대표적인 유교지식인이다.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유교지식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풍수론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학자들 중에서 조선전기 풍수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인 장현광, 정구, 윤선도, 권섭을 사례로 들어 그들의 주자학적 풍수론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유학자 장현광은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면서, 성리학적인 우주론과 자연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저술한 사람이다. 그는 주역의 포괄적인 사상체계 범주에서 풍수도 수용하였다. 장현광은 풍수지식을 활용하여 주거지의 입지를 정하기도 하였고, 고향 연고지의 여러 곳에 대해 풍수적 견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풍수관을 보면, 묘지풍수에서 형세론적 이치는 수궁하고 있지만 장례기일을 미루는 발복 목적의 행위는 비판하였다. 그리고 고을의 풍수에서 숲의 조성을 통한 경관 보완[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당

시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풍수설과 풍수이론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 수 있는 논의가 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문인(門人) 신열도는 1630년 봄, 처의 상(喪)을 계기로 평소 의문을 가졌던 예법(禮法)에 대해서 장현광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당시 사회적인 병폐가 되고 있는 묘지 풍수설의 합리성 여부를 묻는 내용이 있다.<sup>35)</sup> 대답에서 나타나는 장현광의 풍수인식을 살펴보면, 산천의 흩어지고 모임[聚散]을 고려한 풍수의 이치와 쓰임새는 수궁하고 있지만, 발복을 꾀하려 장례 기일을 늦추는 술법적 행태는 단호히 비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문인(門人) 신열도의 질문 내용에서 당시의 풍수설은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대중화되었고 맹신되면서 병폐가 만연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자들의 풍수론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으로서, 장현광의 스승인 정구가 58세 때인 1600년에 의인왕후가 죽어 능을 선정하던 중에, 지관들이 이장을 주장하자 산릉 자리를 고쳐 잡지 말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다. 이 상소문에는 지리가들의 설에 대한 정구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sup>36)</sup> 여기서 정구는 지리가(地理家)의 설을 들어, 풍수론 중에서 형세론은 중요한 것으로, 이기론(방위론)은 참고할 만한 것으로, 그 밖의 화복설을 주장하는 후대의 변채한 풍수 논의들은 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sup>37)</sup> 일찍이 조선 초에 하륜(河崙, ?~1416)에 의해 『지리신법』의 이기론이 국도 입지 과정에서 주요한 논리로 작용한 적도 있지만, 조선중기에 이르러 유학자들 사이에는 형세론이 우세한 영향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신이자 유교지식인이었던 윤선도도 풍수론에 밝은 사람이었다. 조선중후기의 조정에서 그는 유학자로서 가장 풍수에 정통하였던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윤선도의 풍수 실력과 경력은 그의 나이 73세 되던 해(1659년) 효종 산릉의 입지선정에서 간산(看山) 책임자를 역임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당시에 그는 왕릉 풍수의 평가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산릉의(山陵議)」와 「산릉간심시추고함답(山陵看審時推考緘答)」이라는 글을 남겼다.<sup>38)</sup> 그 중 「산릉의」는 한양 인근에 왕릉이 들어설만한 여러 후보지를 풍수적으로 살피고, 국



가 능침의 큰 쓰임새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논평하여 의론한 글이다. 이 글에는 윤선도의 정밀한 형세론적인 풍수 이해에 기초하여 각 현장의 평가가 서술되었으며, 그 중에는 주자(朱子)의 견해도 인용되고 있어 그의 주자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윤선도의 유학적 풍수지식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왕릉지의 선정으로 인해 야기될 백성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고충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과 생업의 보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한 점이다.<sup>39)</sup> 윤선도는, 비록 풍수를 국가에서 국사(國事)로 도모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백성의 삶과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그 때에만 풍수의 효용도 달성될 것이라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유교적 풍수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풍수는 조선시대 조정의 권신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과 연관되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곤 하였다. 그러나 유학자의 정체성을 견지한 윤선도에게서 풍수는 왕실에서 쓸 국가적 효용으로도 중요하였지만, 그로 인해 야기되는 백성들의 고충을 보전(補填)하는 방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처럼 그는 민본(民本)의 실질을 중시했던 유학자로서의 풍수지식인이었던 것이다(최원석, 2012, 254).

조선중기의 유학자로서 풍수지식인을 대표하는 또 한사람으로 권섭이 있다. 권섭의 사례는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유학자들의 묘지풍수론에 대한 면모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권섭은 『묘산지(墓山誌)』라는 묘지 풍수지(風水誌)를 저술한 인물로서 주목된다. 이 책에는 문중의 산소에 대한 산천 형세가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풍수 조건이 평가되고 있으며, 그림[山圖]으로 표현되었다. 권섭은 인사(人事)의 길흉화복이 풍수에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 풍수론의 논지와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보다 묘지의 풍수적 비중을 더 크게 보았다. 권섭의 풍수적 실천 동기이자 목적은 돌아가신 부모를 안온한 곳에 모시기 위한 효심의 발로였음이 『묘산지』의 서문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묘지풍수론에 대한 믿음은 선조의 산소에 대해 상당할 정도의 풍수적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권섭은 풍수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결(秘訣)이나 실제 현장에 대한 답산기(踏山記)도 탐독

하였을 정도로 관심이 깊었다. 아울러 수많은 지사(地師)와의 교분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묘지의 현장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추었다. 풍수를 보는 자세에 있어서도 탐욕을 경계하고 삼감[慎]의 유교 윤리가 강조되었다. 그가 저술한 묘지 풍수지에서 유교적인 견해로 풍수적 입지경관을 평가, 해석하고 있는 점도 유학자의 풍수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권섭은 유교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산수관 및 산수미학의 한 요소로서 풍수를 수용하기도 했다(최원석, 2006).

조선시대에 걸쳐 지방 향촌사회에 풍수론이 공간적으로 널리 확산된 것에도 유학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컸다. 그들은 지역 근거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그리고 문중의 묘지에 대한 풍수적 담론을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유력한 견해는 고을이나 마을의 풍수적 조영과 경관 보완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경북 선산에서는 김종직(1431~1492)이 고을터의 물난리를 방지하기 위해 감천 가에 수해방비림을 식재하였던 적이 있으며,<sup>40)</sup> 장현광도 옥산현(인동) 고을터의 풍수적 보완을 위해 비보숲을 조성, 관리하는 데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sup>41)</sup> '마을 앞을 가리는 숲을 다시 세울 것을 의논한 글(議復立遮藪文)'<sup>42)</sup>은 장현광의 풍수비보적 인식과 실천적 정황을 단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향촌 사회에 있어 유학자들의 풍수에 대한 태도와 영향력, 그리고 풍수담론의 수용 모습을 반증해 준다(최원석, 2010, 26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 주자학이 사회사상의 이데올로기로 지배하게 되면서 유학자들의 풍수론 역시 주자의 풍수 견해와 성리학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사회의 종법적(宗法的)인 지배 질서에 기초한 주자학의 효 사상과 결부되어 묘지풍수론은 새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풍수 이론에서는 주자의 견해에 따라 형세론의 풍수가 유학자들 간에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조선 왕조 초기에 이기론은 잠시 부각된 적이 있으나, 조선중기에 이르러서는 참고할 논리 정도로 유학자들에게 취급되었으며, 화복설을 주장하는 풍수 논의들은 경계되었다. 유학자들의 풍수 실천 동기이자 목적은 돌아가신 부모를 잘 모시려는 효심에 있었으며, 국가의 일로 풍수사업

을 도모한다고 하여도 백성의 삶과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풍수의 효용도 달성될 것이라는 보국안민의 유교적 풍수담론도 펼쳐졌다.

### 3) 조선후기의 실학적 주거풍수론

조선사회에서 묘지풍수는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발복의 속신(俗信)이 횡행하고, 종족 집단 간의 산송(山訟)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와 부작용도 심각하게 초래되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이러한 묘지풍수의 사회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격렬하게 성토하고 비판하였다.

묘지풍수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복 논리에 대한 정동유(1744~1808), 홍대용(1731~1783), 이익(1681~1763), 정약용(1762~1836) 등 실학자들의 이론적인 비판도 신랄하였다. 이익은 조선시대 풍수 텍스트였던 『금낭경』의 “돌아가신 이의 뼈가 기를 얻으면 후손은 음덕을 받는다”는 묘지풍수론의 감응론(感應論)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마른 뼈가 썩어서 아픔도 가려움도 모르고 오랜 세월을 겪어 흙먼지로 변했는데 어찌 생존한 자와 서로 느낌을 통해 화복을 이룰 수 있겠는가”<sup>43)</sup>라고 합리적인 논지로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자들은 한편으로 주거풍수론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인 측면은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배경에는, 사화(士禍)와 전란의 혹독한 시대 환경을 겪으면서 유학자들 중에 가거지(可居地)를 찾아 산림에 은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만했고, 이에 필요한 주거지 선정과 주택의 건축에 실제적으로 풍수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선전기의 사변적인 성리학에 대한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반성과 비판 역시 풍수론을 주거생활에 합리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 조선후기에 마을풍수론과 주택풍수론의 발달을 이끈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으며, 이 조류를 주도한 사회계층은 실학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묘지풍수론을 배격하고 상대적으로 마을의 입지선택과 주택건축에 있어서 합리적인 풍수논의는 수용하여 실용적인 풍수론을 조선후기 사회에 저술로 제시하였다.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풍수를 마을의 거주환경 관리를 위한 실용적 원리이자 지침으로 운용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은 ‘이상적인 주거지를 선택하고 생활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서 풍수 논의를 수용하고 전개하였다. 홍만선, 유증립, 이증환, 서유구 등을 대표로 하는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적 시대정신으로 중국의 풍수지식 중에서 생활에 유용한 면을 수용하여, 마을과 주택의 입지를 선정하고 집의 건축에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실학적 풍수론은 조선전기의 사변적이고 윤리적인 풍수론과는 달리 실생활에 유용한 풍수론이라는 특징이 있다. 실학자들은 거주지와 주거환경의 자연적 인문적 제반 요소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풍수 논의를 중국의 주택풍수서에서 비판적으로 끌어냈다. 18세기 초 홍만선의 『산림경제』(『복거』), 18세기 중반 이증환의 『택리지』(『팔도총론』·『복거총론』·『지리』)와 유증립의 『증보산림경제』(『복거』), 19세기 초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상택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술 내용들은,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서 이상적인 주거지와 주거환경의 공간적·장소적 조건에 관해 서술한 대표적인 실학적 풍수론의 성과이다. 위의 저술 속에는 조선후기 유교지식인들의 주거관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환경의 지리적·풍수적 입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상적인 거주지에 대한 지역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차례대로 그들의 풍수적 견해와 의의를 비평해보면 다음과 같다(최원석, 2012, 3-27).

홍만선(1643~1715)이 저술한 『산림경제』는 저자가 산림에서 살 생각으로 산지생활사와 관련된 내용을 편집한 책이다.<sup>44)</sup> 이 책은 산림에서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거, 생업, 양생, 보건 등의 내용을 망라한 지식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당시의 지식인사회에 영향을 끼쳐 이후 유증립의 『증보산림경제』(1768)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9세기 초)의 저술로 이어졌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의 첫 부분에 『복거(卜居)』편을 두고 거주환경 및 주거지의 선택에 자세한 논의를 제

시하였다. 여기에는 저자의 주거관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거주환경의 요소가 되는 주거지의 지리·지형적 조건, 도로 조건, 대지의 형태, 주위 산수와 건조물의 환경, 조경 요소, 주거지 주위의 지형지세, 토질과 수질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주거지의 선택에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논의의 근거로서 참고한 책들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주로 읽혔던 중국의 주택·주거 관련 서적들이었으며, 그의 저술 내용은 주로 주택풍수서에 정리된 거주환경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sup>45)</sup> 아쉬운 점은 기존에 중국에서 저술된 내용을 발췌,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자신의 해석과 견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이후에 이중환, 유증립, 서유구의 저술에서는 그 한계가 보완되었다.

홍만선은 “터를 가려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경솔하게 살 곳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거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적인 거주환경의 입지지형은 “풍기(風氣)가 모이고 앞과 뒤가 안온하게 생긴 곳”이고, 그 구체적인 공간적 모형은 “안은 널찍하면서 입구는 잘록하여야 한다.”<sup>46)</sup>고 하였다. 요컨대 구릉지나 산지의 분지지형을 이상적 주거지의 입지모델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풍수적인 명당 형국과도 그대로 일치한다.

이중환(1690~1752)의 『택리지』는 한국적 취락입지 모델을 추구한 지리서이자 이론서로 평가된다. 이 책의 『복거론』에서는 조선후기의 실학적 유교지식인으로서 이중환의 주거관이 집약되어 있고, 『팔도론』에서는 조선후기의 전국적 거주환경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전개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풍수서에 서술된 터잡기의 논리체계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현지의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마을입지론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한 저술로서 의의가 있다. 『택리지』의 창의성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적 공간 단위라는 사실로도 돋보인다. 이 책 전후에 편찬된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은 모두 개인주택의 주거에 대해서 논의한 저술이기 때문이다.

이중환의 주거관이 반영된 것으로서, 『택리지』에는 조선후기에 사대부가 살만한 마을이 갖추어 입지 조건

에 대해 상세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풍수적 거주환경[地理]’은 가장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그는 마을 입지에 있어서 아무리 경제적 여건과 교통적 조건이 좋아도 풍수적 거주환경 조건이 좋지 않으면 가거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을 입지에 있어서 경제와 교통 조건에 선행하여 풍수적 거주환경의 필요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sup>47)</sup> 구체적으로 이중환은 이상적 거주환경을 갖춘 마을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형적인 입지요소를 수구(水口), 들판의 형세, 산의 모양, 흙 색깔, 하천의 흐름, 마주하는 산과 하천이라는 여섯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후기에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었던 풍수논의와 경험적 주거지식을 검토하여, 전국의 거주환경에 대해 검토하여 논의하였고 마을입지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고 평가할 수 있다.<sup>48)</sup>

『증보산림경제』는 유증립이 1766년에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엮은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거주환경에 관한 논의는 많은 부분이 『산림경제』 「복거」에 나오는 내용을 재수록 하였지만 새로 보완한 것도 있다. 거주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정보에 관하여 『택리지』의 내용과 『정감록』의 십승지(十勝地) 내용도 책 끝에 따로 덧붙였다.<sup>49)</sup> 「복거」편의 저술에서 대부분의 증보된 내용 역시 기존의 중국 풍수서와 주택 관련 서적에서 인용하였다.<sup>50)</sup>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이 책을 비교해 볼 때 책의 분량은 『산림경제』의 두 배가 넘고, 주제도 5가지가 더 추가되었다.<sup>51)</sup> 편찬 방식과 목차의 순서도 다소 다르다. 거주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지역정보에 관하여 『택리지』의 내용과 『정감록』의 십승지(十勝地) 내용도 책 끝에 따로 덧붙였다. 다만 「복거」편의 저술에서 대부분의 증보된 내용 역시 기존의 중국 풍수서와 주택 관련 서적에서 인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아쉬운 점은 자신의 견해 없이 기존의 저술을 인용하였을 뿐이고 그나마 출처도 밝히지 않은 점이다. 유증립은 거주환경 논의와 관련하여 「복거」편에 술수적인 내용도 대폭 추가하였다. 터잡기와 집짓기에 대한 풍수 내용이 대폭 보완된 것은 관련 지식정보의 보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주택풍수서의 화복설(禍福說)을 검토

없이 수록한 문제점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점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와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풍수적 주거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유중림의 거주환경 관련 논의는 책의 「복거」편에 종합되어 있으며, 그의 주거관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산림경제』(「복거」)의 체제와 내용에 비하여 상세하게 소제목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집터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자연적 요소로 지세, 평지와 산골짜기의 지형적 입지, 집터의 지형 및 방위, 토양, 물과 수구, 집터 주위의 산 모양, 바람의 방향 등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주거지에 알맞은 장소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sup>52)</sup> 그가 거주환경과 집터잡기에 관해 추가한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주택풍수서에 서술된 것으로, 중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기초한 지식이기 때문에 조선의 조건에 그대로 적용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 이 점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와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풍수적 주거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적 풍수론을 대표하는 유교지식인 중에 서유구(1764~1845)가 있다. 그가 저술한 『임원경제지』 「상택지(相宅志)」 편에는,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의 복거론과 『택리지』의 복거론·팔도론을 채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타 문헌을 대폭 참고하고 자신의 논의를 펼쳤다.<sup>53)</sup> 「상택지」편에 나타난 서유구의 주거관 및 거주환경 논의의 가치는, 조선의 현실에 적용할 주체적 관점을 견지한 점, 거주환경 조건과 지리적 입지환경 유형에 대한 논의에 충실을 기한 점, 전국의 이상적인 주거지 지역정보를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한 점, 술법적인 풍수를 배격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한 주거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유구는 중국의 주거 및 풍수 관련 저술들을 요약하고<sup>54)</sup> 조선에서 출간된 선행연구인 『산림경제』·『증보산림경제』·『택리지』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거나 새로 자신의 견해까지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더욱이 저자가 이 책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듯이, 과거에 중국에서 쓰이던 것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선에서 쓰일 수 있는 방도만을 수록하고자 했기에<sup>55)</sup>, 『산림경제』(복거) 및 『증보산림경제』(복거)가 중국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과 대비해 이 저술의 주체적인 관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임원경제지』 「상택지」의 구성을 ‘터잡기와 집짓기’, ‘팔도명지’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조선후기의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들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서유구의 주거관이 잘 드러나 있는 ‘터잡기와 집짓기’ 장에는 집을 짓기에 적합한 장소 선택과 집의 조영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논의는 모두 조선후기 당시에 유입되어 있었던 중국의 풍수서와 건축 관련 서적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는 터잡기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각론은 지리, 물과 토지, 생업의 이치, 풍속과 인심, 뛰어난 경치, 피해야 할 장소 등으로 세부 주제별로 분류하여 가거지 선택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총론, 지리, 생리, 인심, 산수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유교지식인의 주거관이 반영되어 있다. 책의 편제가 백과전서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택리지』에 비해 전체적인 체계성과 논리적 구성도는 미치지 못하나, 내용상으로 터잡는 방법론 논의는 더 상세한 편이다. 그리고 집짓기는 황무지개간, 나무심기, 건물배치, 우물·연못·도랑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서유구의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가 집약된 ‘팔도명지[八道名基]’ 장에서는 팔도총론, 명지소개, 명지평가로 나뉘어 상세히 서술되었다. 팔도의 명지를 편제한 목적은 “수신(修身)하는 선비가 살거나 다닐 때 가리고 선택할 곳을 알도록 하기 위함”<sup>56)</sup>이며, 이것은 “올바른 일상의 삶에 도움이 될 것”<sup>57)</sup>이라고 그 실용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특히 명지소개에서는 전국의 230곳에 이르는 가거지와 명승지를 열거하고 있기에 주목된다. 각각의 명지에 대해서는 인용출처, 위치, 지리환경, 사회·역사·문화, 토지비옥도 및 생산성, 현황 등을 약술하고 일부 장소는 가거지 여부의 평가도 덧붙였다.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서유구의 주거관을 살펴보면, 거주환경 논의에 대해서 유교지식인이자 생활인으로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접근하였으며, 당시의 사회전반에 퍼져있었던 술수적 견해를 경계하고 버리기를 권고하였다. 생활에 긴요한 집



터의 선택에 있어서도 실사구시적인 학문자세와 이용 후생의 주거관을 견지하였으나 풍수의 화복설은 경계하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주거지를 정한다면 여러 가지의 조건과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산 높이, 주택 외형, 지형경관, 생태경관, 수자원, 경작 조건, 경관미, 이상적 주거(마을) 규모, 주민의 교양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sup>58)</sup> 서유구의 논의는, 기존의 선행저술에서 제기되었던 거주환경과 주택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바람직한 주거관과 이상적인 거주환경 조건에 대하여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저술에는 마을 혹은 집터의 입지선택 및 주택건축과 관련한 주거풍수론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수용 태도와 내용이 잘 드러난다. 실학자들은 주거관 및 거주환경에 관련된 주요 저술에서 중국풍수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특히 홍만선을 비롯하여 이중환을 거쳐 서유구로 이어지는 풍수 관련 저술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마을입지 및 마을 거주환경, 주택건축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주거풍수론으로 정립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4. 요약 및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풍수론의 전개 양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특색에 대해 몇 가지 결론과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공간적 전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도읍풍수론,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묘지풍수론, 조선후기의 실학적 주거풍수론의 양상으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풍수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어 신라시대에 왕권 세력 및 귀족층, 관료지식인들에 의해 독점되어 왕릉의 조성 등에 쓰였다. 신라 하

대에 풍수론은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에 의하여 사찰지 선정에 활용되었고 그들을 지원하는 주요 지방호족들에게 확산되었다. 고려왕조에서 도선의 비보사탐설은 국토경영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으며,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도읍풍수론으로 운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묘지풍수론과 주거풍수론이 활발하였다. 조선전기에 와서 풍수는 국토 입지와 왕궁의 조성, 왕릉 입지선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고을의 풍수적 입지 및 조영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풍수가 마을의 형성 및 세력화 과정에 영향을 주어 주자학에 사상적 기반을 둔 사족층의 마을풍수 담론을 형성하였고, 유교적 효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확산과 맞물려 묘지풍수의 성행을 수반하면서 풍수는 일반 서민층에까지 널리 실천되었다. 그리고 실학자들은 실생활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주거풍수론을 조선후기의 사회에 창도하였다.

한국 풍수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색은 동아시아에 대비해 실제적 운용성, 전반적 영향력과 시대적 다양성, 사회적 담론화, 형세론의 우세, 비보론이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중국의 풍수론을 도입하여 자연적 풍토와 문화적 배경에 맞게 실제적으로 운용하고, 사회적·공간적인 담론으로 활용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반면 중국처럼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독창적인 견해와 풍수 논리의 뚜렷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풍수론이 '운용'된 산물로서, 현지의 명당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록한 유산록, 풍수도참기, 왕릉 및 문종묘지의 산도(山圖), 실학자들의 주거풍수론 저술 등의 문헌기록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자연마을에서 형성된 풍수지명, 풍수형국, 풍수설화 등의 민간전승이 전해져 내려온다. 전통취락에서 잘 드러나는 풍수경관 역시 실제적 운용을 증거 하는 가시적인 문화생태유산이 된다.

둘째, 풍수론이 한국문화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력과 함께 다양한 시대별 전개 모습도 특색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풍수문화를 가장 꽃피운 나라였다. 유형적인 경관으로서 국토, 왕릉, 태실, 지방 고을, 마을, 묘지 등과 무형적인 기록 및 전승으로서

문헌, 지명, 설화 등 제반 분야에 풍수가 깊숙이 파고 들어 영향을 미쳤다. 공간적으로는 국도에서 시작되어 지방 고을, 마을의 주택 단위까지 풍수입지 및 풍수경관이 파급되었다. 계층적으로도 사실상 모든 사회계층의 지리적 인식과 태도에 반영되었다.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도읍풍수론,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묘지풍수론, 조선후기의 실학적 주거풍수론과 같이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시기별로 풍수론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 풍수론은 사회사상 및 이를 주도하는 사회계층과 맞물려 사회적 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시대사상으로서 불교 및 도참과 결합된 고려시대의 비보풍수론, 유교와 결합된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풍수론과 조선후기의 실학적 풍수론은 사회사상이 반영된 한국 풍수론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사회사상을 창도한 계층집단으로서, 고려시대에 비보풍수론을 주도한 승려와 왕조세력, 조선시대에 주자학적 풍수론과 실학적 풍수론을 이끈 사대부 유학자계층은 사회사상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회계층이라고 하겠다. 고려시대에 비보풍수론은 불력신앙과 지력사상이 결합되어 고려왕조 세력의 통치이념으로 사회사상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풍수론은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유학자들에게 수용되어 종족 사회집단의 세력화 과정과 맞물리면서 유교적 풍수담론의 특색을 나타내었다.

넷째, 한국 풍수론의 이론적 경향은, 중국의 형세론과 이기론 중에 형세론이 우세하게 운용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시대에 이미 형국에 대한 초기적 사유가 등장하고, 나말려초에는 산천의 순역을 따지는 형세론적 논의가 지배하였다. 조선 초에 잠시 이기론이 천도 과정에 중요한 논리로 대두된 적이 있으나, 곧 이어 주자학적인 풍수담론이 득세하게 되자 다시 형세론이 풍수론의 중요한 논리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한국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아서 형세론의 적용이 유용했다는 점, 신라 말에 유학을 간 승려지식인들이 중국 강서지방의 형세론을 습득해 들어왔다는 점, 조선시대에 주자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되면서 주자의 형세론적인 풍수논의가 지침이 되었다는 점을 이 유로 들 수 있다.

다섯째, 비보론은, 형세론과 이기론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및 중국 풍수론 일반에 비추어 한국 풍수론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도입된 풍수론이 한국에서 공간논리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해나가면서 비보론은 나말려초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교하게 이론화된 형세론 및 이기론의 중국 풍수이론이 적용되고 운용되었지만, 비보론 역시 면면이 유지되어 취락 경관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로 정착된 바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비보론과 대비하면, 유구(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본토에서 비보론은 희소하고, 중국에서는 비보론이 널리 민간계층과 지방사회까지 실천되었지만 한국사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사상적으로 지배집단의 통치적 이데올로기이자 국토운영의 원리로까지는 기능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보론은 정교한 이론적 논리체계는 갖추지 못한 풍수의 사회적 응용 및 실천 형태라는 한계도 있었다.

## 주

- 1) 동아시아의 풍수는 중국에서 이론이 형성되어 한국, 일본, 유구 등의 정치사회적, 역사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용되어 전개된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국에서 도입된 것으로의 풍수사상과 원리, 개념과 이론 등은 보편성을 띤다.
- 2) 본고의 풍수론이라는 개념은 풍수이론과 풍수담론을 아우르는 용어로 쓴다.
- 3) 村山智順, 1931, 朝鮮의風水, 朝鮮總督府.
- 4) 이병도, 1947,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 5)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6) Yoon, Hong-Key, 2006,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An Exploration of East Asian Geomancy*, Lanham: Lexington Books.
- 7) 풍수 기원에 대한 지리학 분야에서의 논의는 동아시아와 한국이라는 양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동아시아 풍수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윤흥기의 황토고원설로, 한국 풍수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최창조의 자생풍수론으로 대비된다. 두 견해에서 한국 풍수의 기원은 각각 중국과 한국으로 뚜렷이 나뉜다. 이들 주장은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쟁을 통해 검토되거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두 주장의 전제는 풍수라는 용어의 범주 및 정의에 대한 해석

- 적 차이에 근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창조는 풍수론(중국과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으로 넓게 해석하나, 윤홍기는(중국에서 정립된) 땅에 대한 독특한 논리체계로 한정한다. 최창조의 주장대로, 중국의 풍수가 유입되기 이전에도 한국에도 사상적으로 풍수와 유사한(혹은 원시적인) 지리적 인식과 태도, 땅에 대한 사고관념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한편으로 윤홍기의 주장대로, 풍수 이론 자체는 중국에서 성립하여 발달한 것 또한 분명하다. 그래서 전래의 땅에 대한 사고관념이 중국에서 유입된 풍수사상 및 이론과 섞이고, 한국의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 풍토에 맞게 수용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 한국풍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풍수론을 한국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고려시대의 비보풍수론은 비보사탑설, 지기쇠왕설, 地理延基說 등과 맞물리면서, 고려전기에는 전국적인 비보사찰의 정비와 재편, 고려 중후기에는 왕도 천도, 離宮 설치의 이론적 기반과 사회적 담론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 9) “(탈해는) 토함산에 올라 돌무지를 만들고 7일 동안 머무르면서 城 중에 살 만한 곳이 있는지 바라보니, 마치 초승달 같이 둥근 모양의 언덕이 있어 지세가 오래 살 만한 곳이었다.”(삼국유사, 권1, 기이2, 제4대탈해왕)
  - 10) 신라 말에 강서성에서 선종을 배우고 귀국한 승려들이 개창한 사찰들은 풍수적 입지를 하고 있고 풍수비보물을 설치한 사실도 비문에 나타난다.
  - 11) 고려사, 세가, 태조 26년 4월.
  - 12) 고려사, 세가, 현종 13년 5월.
  - 13)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에 걸쳐 천문·지리 등의 일을 담당한 관청이다. 1425년(세종 7)에 이름을 바꾸어 관상감이라 했다.
  - 14) 각각의 위치에 따라 수행하는 풍수 업무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문헌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15) 고려사, 세가, 숙종 7년 3월.
  - 16) 문종실록, 1년, 4월 14일.
  - 17) 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 18) 세종실록, 18년 8월 신미일, 문종실록, 즉위년 9월 8일.
  - 19) 세종실록, 20년 1월 20일.
  - 20) 태봉등록, 현종 3년 2월 1일.
  - 21)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풍수도참서이자 예언서이다. 수십여 편의 秘訣이 집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풍수, 도참, 음양오행, 도교 등이 섞여 있다. 저자를 알 수 없고 민간에 전승되어 수많은 필사본이 전해진다. 반 왕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왕조에서 금서로 취급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정감록신앙이 형성된 이유가 되었다. 특히 정감록에 포함된 십승지 관련 비결은 민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지목된 장소로의 인구 이동과 거주지 형성을 유발하기도

- 하였다.
- 22) 고려사, 세가, 예종 1년 3월.
  - 23) 지리학교수는 풍수전문인으로서 가장 직급이 높았고, 그 아래에 강사에 해당하는 지리학훈도와 풍수를 수학하는 학생으로서 지리학생도가 있었다.
  - 24) 태종실록, 17년 11월 5일.
  - 25) 선조실록, 33년 9월 21일의 1600년 기사에는, 중국의 나경이란 것이 기존에 쓰던 윤도와 비슷하지만 여러 양식이 구비되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영조실록, 18년 11월 20일의 1742년 기사에는, 관상감에서 청나라에서 들어온 5층 윤도를 본떠 만들기를 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 26) 임원경제지, 권6, 상택지.
  - 27) 한국의 풍수적 이상향 관념의 하나이다. 승지라는 말은 자연 경관과 거주 환경이 뛰어난 장소를 말하지만, 조선중후기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폐로 말미암아 개인의 안위를 보전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피난지를 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십승지는 모두 지리적으로 내륙의 산간 오지에 위치한다. 십승지로 지목된 장소는 영월의 정동쪽 상류, 풍기의 금계촌, 합천 가야산의 만수동 동북쪽, 부안 호암 아래, 보은 속리산 아래의 증향 근처, 안동의 화곡, 단양의 영춘, 무주의 무풍 북동쪽 등이 있다. 십승지 관념은 조선 후기에 민간계층에 깊숙이 전파되어 거주지의 선택 및 인구이동, 그리고 공간인식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
  - 28)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촌 등의 유명 십승지에는 지금도 비결파들의 후손들이 생존하여 살고 있다.
  - 29) 오상학은 “알레고리의 지형학-조선시대 風水 囑形論 탐색”(2015)에서, 근래 형국론으로 쓰이는 용어를 전통적으로 쓰인 갈형론으로 바로잡고 풍수이론사적 유래와 근거를 밝혔다.
  - 30) 최원석·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희의 형국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
  - 31) 성종실록, 16년 1월 8일조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2) “대체로 先儒들은 지리설에 대해서 분명한 정론을 내렸습니 다. 주희는 家禮에 程頤가 말한 “토질이 좋으면 신령이 편안하고 자손이 번창하며 토질이 나쁘면 이와 반대로 된다. 이른바 토질이 좋다는 것은 흙의 빛깔이 윤기가 있고 초목이 무성한 것이 그 징험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따지는 자들은 자리의 방위를 가리고 날짜의 길흉에 따라 장례하는 때를 정하니, 잘못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주희의 논리는 오로지 산이 들고 물이 감싸는 것을 주로 할 뿐, 무슨 산 무슨 물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설은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한강선생문집, 권2, 소, 청물개복산릉소).
  - 33) 「산릉의장」은 1194년, 주자가 나이 65세 때에, 당시 송나라 황제인 영종(寧宗)에게 효종의 능 선정과 관련하여 풍수

적 견해를 올린 글이다(김두규, 2005).

34) 朱熹, 朱熹集.  
 35) 여헌선생속집, 권9, 부록, 배문록[문인 신열도].  
 36) 한강선생문집, 권2, 소, 청물개복산릉소.  
 37) 한강선생문집, 권2, 소, 청물개복산릉소.  
 38) 고산유고, 권5 하.  
 39) 홍재전서, 권57, 정원 제1.  
 40) 경상도읍지, 선산부, 입수.  
 41) 여헌선생속집, 권4, 잡저, 의부립차수문.  
 42) 여헌선생속집, 권4, 잡저, 의부립차수문.  
 43) 성호사설, 권9, 인사문, 감여.  
 44) 산림경제, 서.  
 45) 산림경제, 권1, 복거, 홍만선이 주거지 선택의 논의에 주로 인용한 저술은 居家必用, 攷事撮要, 四要必用 등이다.  
 46) 산림경제, 권1, 복거.  
 47) 택리지, 복거총론.  
 48) 택리지, 복거총론.  
 49) 『중보산림경제』는 『산림경제』의 편제와는 달리 책의 끝부분에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남사고십승보신지(南師古十勝保身地)」, 「동국승구록(東國勝區錄)」을 실고 당시 이상적인 거주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들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이로써 볼 때, 당시에 『정감록』의 십승지 담론은 피난보신처를 찾으려는 민중들의 주거관뿐만 아니라, 산림에 은거하고자 하는 유교지식인들의 가거지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50) 중보산림경제.  
 51) 농촌진흥청, 2003, 고농서국역총서 4 중보산림경제 I~III, 해제 6-7쪽.  
 52) 중보산림경제, 복거.  
 53) 임원경제지, 상택지의 편제와 구성에서, 서유구가 가장 많이 인용한 저술은 이중환의 택리지이다. 기존 논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저술인 金華耕讀記를 따로 인용하였다. 대체적으로 한국(조선)의 저술인 택리지를 주 텍스트로 삼고, 중국의 주택풍수서를 요약·편집한 중보산림경제, 복거편과 기타 관련 서적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54)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서유구가 참고했던 중국의 주거 관련 서적으로는 居家必用, 山居錄 등이 있고, 풍수서로는 相宅經, 陽宅吉凶論, 陰陽書, 地理新書 등이 있었다.  
 55) 임원경제지, 예언.  
 56) 임원경제지, 상택지인.  
 57) 임원경제지, 상택지인.  
 58) 임원경제지, 권6, 상택지, 접기.

## 참고문헌

三國遺事  
 高麗史  
 文宗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宣祖實錄  
 胎封謄錄  
 寒岡先生文集  
 旅軒先生續輯  
 孤山遺稿  
 弘齋全書  
 慶尙道邑誌  
 星湖僿說  
 山林經濟  
 擇里志  
 增補山林經濟  
 林園經濟誌  
 朱熹集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산송,” 한국학보, 28(4), 59-102.  
 김낙필, 2006, “고려의 도교사상,” 한국사상사입문, 서문문화사.  
 김두규, 2005,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농촌진흥청, 2003, 고농서국역총서 4 중보산림경제 I~III, 해제.  
 박용운, 1990,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도 연구, 일지사.  
 손항룡, 1987, 한국도교철학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안영배, 2013, 고려·조선전기 이기파풍수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은용, 1990, “정감록 신앙의 재조명,”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연구원, 37-39.  
 오상학, 2015, “알레고리의 지형학-조선시대 風水 喝形論 탐색,” 문화역사지리, 27(2), 25-41.  
 윤희기, 2011, 땅의 마음, 사이언스북스.  
 이병도, 1947,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이상태, 1987, “조선 초기의 풍수지리사상,” 사학연구, 39, 203-256.  
 조인철, 2005,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인철, 2011, “조선후기에 제작된 윤도에 관한 연구: 규장각 소장 윤도의 구성방식과 논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159-195.
- 최원석, 2004,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 최원석, 2006, “조선후기 지식인의 풍수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관한 일 고찰- 玉所 權變의 墓山誌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8, 87-121.
- 최원석, 2009,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 *대한지리학회지*, 44(1), 77-88.
- 최원석, 2010, “조선후기 영남지방 사족촌의 풍수담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65-274.
- 최원석·구진성 편저, 2010,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이회.
- 최원석, 2011, “마을풍수의 문화생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259-269.
- 최원석, 2012,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국토연구*, 73, 3-27.
- 최원석, 2012, “보길도 윤선도 원림의 풍수경관과 세계유산적 가치,” *남도문화연구*, 22, 243-271.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최창조, 1993,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 한기문, 2006, “고려시대 비보사사의 성립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21, 255-292.
- 허흥식, 1980, *고려과거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Yoon, Hong-Key, 2006,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An Exploration of East Asian Geomancy*, Lanham: Lexington Books.
- 村山智順, 1931, *朝鮮의風水*, 朝鮮總督府.
- 村山智順, 1933, *朝鮮의占卜と豫言*, 朝鮮總督府.
- 何曉斯·羅雋, 1995, *風水史*, 上海文藝出版社.
- 교신: 최원석,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BNIT & RND 센터 307호(이메일: wschoe@empas.com)
- Correspondence: Choi Won Suk, 307 BNIT & RND Cen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52828 (e-mail: wschoe@empas.com)
- 최초투고일 2015. 11. 18  
수정일 2015. 12. 14  
최종접수일 2015. 12. 22